

농 촌 잠 언

편 집 실*

▶ 까마귀 열 두 소리 하나도 들을 것 없다

검은 속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리 남을 속이기 위해 별 소리를 다해도 믿을 말은 하나도 없다는 뜻.

▶ 두꺼비 콩대에 올라 세상이 넓다 한다

생각하는 것이나 하는 일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옹졸한 사람을 이르는 말

▶ 가마솥 밀이 노구솥 밀을 검다한다

남보다 잘못이나 결함이 많은 사람이 제 흉은 모르고 남의 잘못이나 흉을 본다는 것을 비유한 말(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)

* 이번 호의 농촌잠언은 북한의 속담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.

▶ 산보다 골이 더 크다

떨린 것이 주된 것보다 크거나 더 많은 것을 비유할 때 쓰이는 말(배보다 배꼽이 크다)

▶ 비는 하늘이 주고 절은 부처가 받는다

어떤 일의 결과가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돌려져 감사를 받거나 칭찬을 받는 경우를 놓고 이르는 말(재주는 곰이 부리고, 돈은 주인이 챙긴다)

▶ 늙은 말이 콩을 더 달란다

늙어서 남처럼 일은 못하면서도 명예와 보수를 더 많이 기대하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

▶ 밭 팔아 논은 사도 논 팔아 받은 사지 말라

지난날에 밭보다 논이 귀중하다는데서 살림을 늘리려면 좋은 방향에서 늘려나가야 함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

▶ 호박씨 까서 한 입에 넣기

호박씨 까는 식으로 힘들게 조금씩 장만한 물건을 소비할 때는 보람없이 한꺼번에 소비하거나 남에게 몽땅 빼앗기는 경우를 이르는 말

▶ 노루도 약이 니면 뒷다리를 문다

아무리 순한 사람이라도 막다른 지경에 이르면 대항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

▶ 이마에 땀을 내고 먹어라

노력한 사람에게 성과가 주어져야 함을 나타내는 뜻으로 주로 놀고 먹는 자를 욕하여 이르는 말

▶ 손끝이 거름

농사에서는 사람의 손이 많이 가서 밭을 잘 가꾸면 그것이 곧 거름을 많이 주는 것처럼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요인이라는 뜻

▶ 개미가 정자나무 건드린다.

약자가 힘이 센 사람에게 대담하게 맞서나가는 경우에 이르는 말

▶ 담배씨로 뒤통박을 판다

매우 세밀하고 자질구레하여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일을 함을 비겨 이르는 말. 하는 일이 매우 쯤스럽고 자질구레함을 비겨 이르는 말

▶ 사과가 되지 말고 토마토가 되라

사과처럼 안팎이 다르지 말고 토마토와 같이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뜻으로 사람은 안팎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

▶ 바람부는 날 가루 팔리가듯

해서는 안되는 때에 일을 벌이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

▶ 벋짚에도 속이 있다.

변변치 않은 것에도 속대가 있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대가 없겠느냐는 의미로 사람을 함부로 얹잡아보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

▶ 받는 소는 짹소리 없이 받는다.

소문없이 일을 해치우는 것을 일컫는 말

▶ 여름비는 잠비고 가을비는 떡비다.

여름철에 비가 오면 김도 맵 수 없기 때문에 잠이나 자기 좋고 가을철에 비가 오면 떡이나 처먹기 좋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.

▶ 봄에는 생말가죽이 마른다.

봄철에는 말이 뜯어먹을 풀이 없을 정도로 가물어서 말이 마를 수 밖에 없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매우 가물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

▶ 영계 울고 장다리꽃 피면 밤이 좀 길어진다.

추운 때 깨운 병아리가 자라 엄지닭이 되어 울게 되면 이때쯤은 장다리꽃도 피게 되고 한창 길던 낮도 차차 짧아진다는 것을 이르는 말.

▶ 깐깐 오월, 미끄럼 유월, 어정 칠월에 건들 팔월이라.

오월부터 팔월까지는 특히 변화가 심하다는 뜻으로 오월

은 보릿고개의 절정이므로 힘들고 지루하게 지나가고 유월은 밀보리가 나고 모심는데 바빠서 어느새 지나가는지 모르고 칠월은 김이나 매면서 어정거리는 동안에 지나가고 보니 어느새 건들바람이 부는 팔월이 되었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.

▶ **봄별에 그슬리면 보던 님도 몰리본다.**

따뜻한 봄별에 그슬리면 까맣게 타서 몰라보게 달라진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.

정기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

독자여러분! 평안하십니까? 하시는 사역 위에 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부탁드릴 말씀은 정기구독료 납부에 관한 일입니다. 정기구독 신청하신 지 1년이 지난 분들은 다시 구독료를 납부하셔야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지로용지를 보내드리오니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